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대전(본원): 대외협력실 이종성 042 - 869 - 0976 / 최영진 0947  
문의: 학술정보공유센터 정영임 선임연구원 (02-3299-6028)

배포번호 : 2018-23  
배포일자 : 2018.08.30

매수 : 보도자료 3매

배포처 : 대외협력실

## 허위 학술출판 문제, 예방 대책마련이 중요

- KISTI, “투명하고 건전한 학술출판 생태계 조성” 리포트 발간 -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원장 최희윤, 이하 KISTI)은 허위 학술출판의 문제를 분석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학술출판 생태계 조성방안을 담은 ‘KISTI 이슈 브리프\*’ 를 발간했다.

\* KISTI 이슈 브리프 : KISTI는 국가과학기술정보 분야 대표 연구기관으로서, 최근의 국가·사회 이슈에 대해 폭넓은 조사와 정보/데이터 기반 분석 기법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과 시사점, 대응방안을 제공하고자 “KISTI 이슈 브리프”를 발간함

<https://www.kisti.re.kr/promote/post/issuebrief?t=1535540583098>

-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허위 학술회의의 국내 연구자 참가 실태가 보도되면서 과학학술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 독일 공영방송 NDR, 프랑스 르 몽드, 미국 뉴요커와 국내 뉴스타파, MBC 등 18개국 23개 언론사의 국제 공조에 의한 와셋(WASET) 등 허위 학술회의의 참가 실태가 보도된 바 있다.
  - 보도에 따르면, 국내 일부 연구자는 이러한 허위 학술회의의 발표와 허위 저널에 출판한 논문을 공공 연구성과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 해당 보도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관계 기관에서는 허위 학술회의의 국내 참가자 실태 조사를 하는 등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 이번 ‘KISTI 이슈브리프’ 에서 허위 학술출판에 대한 국내외 실태를 분석함과 아울러, 투명하고 건전한 학술출판 생태계 조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 분석에 따르면, 해외 허위 학술단체는 연구 성과에 압박을 받고 있는 연구자들을 유혹하여, 돈벌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들 허위 학술단체는 진짜 학술지처럼 홈페이지를 그럴듯하게 꾸며 놓고, 연구자들이 논문을 투고하도록 이메일 등으로 현혹하여, 심사도 하지 않고 논문을 게재하는 대신 투고료를 챙기는 수법을 사용한다.
  - 최근 이러한 허위 학술단체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각 국가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허위 학술단체를 구분하는 것이 애매한 측면이 있어서, 허위 학술지 의심 목록을 제시한다거나, 논문 투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예방 활동 위주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 우리나라도 이번 기회에 허위 학술단체로 인한 피해나 악용의 여지를 없애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주장하였다.
  - 그러면서, 1) 투고 학술지·학술회의 선택을 위한 지침 제공, 2) 신뢰할 수 있는 출판사·학술지·학술회의 통합정보 구축, 3) 연구윤리와 연구관리 규정의 재정비, 4) 허위 학술단체 신고센터 개설, 5) 허위 학술출판으로 인한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 6) 연구자

커뮤니티의 자정 노력 전개 등 투명하고 건전한 학술출판 생태계 조성방안을 제시하였다.

- KISTI 최희윤 원장은 “이번 KISTI 이슈브리프가 국내 연구자 및 학술출판 관계자 및 정책 입안자들에게 허위 학술단체에 대한 명확한 지식과 대응책 마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면서, “앞으로도 KISTI 이슈브리프 발간을 통해 KISTI의 역할과 책임에 맞는 다양한 주제 분야와 최신 이슈에 대해 정보/데이터 기반의 분석 기법과 연구를 통해 최신 국가·사회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 <용어 해설>

- ※ 허위 학술출판: 학술지(Journals)와 학술회의(Conferences)는 대표적인 학술출판(Scholarly publishing)의 유형인데, 최근 predatory journals과 fake conferences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두 단어에 대한 번역으로 약탈적, 사이비, 부실, 가짜, 유령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학술 출판의 핵심인 동료 심사(Peer review)도 하지 않으면서 연구자들을 현혹한다는 의미에서 여기서는 허위 학술단체, 허위 학술출판, 허위 학술지, 허위 학술회의 등으로 부르기로 한다.

별첨 : KISTI 이슈브리프